

SUSTINVEST		보도자료	
배포일자	2025. 6. 20. (금)	보도일시	배 포 즉 시
담당부서	리서치본부	담당자	고은해 본부장(02-6310-9318) 설경 책임연구원(02-6310-9308)
배포부서	커뮤니케이션팀	언론담당	양유진 연구원(02-6310-9304)

‘감시자’ 역할 흔들리나... 국내 기업, 감사 독립성·사외이사 견제 기능 약화

- 서스틴베스트, 2025년 상반기 ESG 평가 결과 발표
- 내부감사 독립성 미흡, 장기 재직 감사 증가, 사외이사 전원 ‘찬성’ 기업 95% 달해

국내 기업 지배구조 중 독립적인 위치에서 경영진을 견제해야 할 감사 및 이사회
감시 기능이 실질적으로 후퇴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빠른
추진이 예고된 상법 개정안과도 맞물리며 주목받고 있다.

ESG 평가기관 서스틴베스트는 20일, 국내 1,295개 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5년
상반기 ESG 평가’ 결과를 발표하였다. 이번 평가에서는 지배구조(G) 영역 중 △내부
감사부서의 독립성 △장기 재직 감사 또는 감사위원의 비중 △사외이사의 찬성 외
의견 제시 여부 등 감시 기능과 직결된 주요 지표들이 전년 대비 일제히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 경영진으로부터 독립적인 내부감사부서(내부감사업무 지원조직)를 설치하지
않은 기업의 비율은 55.4%로, 전년(53.4%)보다 2.0%p 증가했다. 이는 기업 내 감시
체계가 제도적으로는 마련되어 있어도 실제 운영 측면에서는 경영진의 통제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구조적 한계가 여전함을 보여준다.

또한, 감사 또는 감사위원이 해당 회사에 6년 넘게 재직 중인 기업의 비중은
26.2%로, 전년(24.2%) 대비 2.0%p 상승했다. 감사나 감사위원의 장기 재직은
경영진과의 유착으로 인해 감시 기능이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를 낳는다.

사외이사의 견제 기능에도 적신호가 켜졌다. 사외이사 전원이 모든 이사회 안전에 찬성한 기업의 비율은 95.3%에 달했으며, 이는 전년(94.1%) 대비 1.2%p 상승한 수치다. 특히 자산 2조원 이상 대기업에서 증가폭이 더욱 두드러졌다. 경영진을 견제해야 할 사외이사가 사실상 '거수기' 역할에 머무르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이러한 결과는 국회에서 논의 중인 상법 개정안의 취지와도 맞닿아 있다. 개정안은 대기업을 대상으로 집중투표제 의무화,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에 주주 포함, 감사위원 선임 시 특수관계인 지분 포함 3%를 적용 등을 골자로 하고 있으며, 경영진에 대한 감시 기능 강화와 주주 권한 확대를 위한 제도적 해법으로 주목받고 있다.

서스틴베스트 류영재 대표는 "감사와 사외이사는 기업의 건전성과 투명성을 유지하는 핵심 기구"라며 "이들의 독립성과 실효성이 확보되지 않으면 주주와 투자자의 신뢰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상법 개정안은 국내 기업 거버넌스의 구조적 한계를 보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로, 자율 개선만으로는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결이 어렵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배구조 부문에서의 취약점이 분명히 드러난 이번 평가 결과 속에서도, ESG 전반에 걸쳐 책임 있는 경영을 실천하며 모범적인 성과를 거둔 기업들도 함께 확인되었다. 서스틴베스트는 동일 평가를 통해 환경(E), 사회(S), 지배구조(G) 전 영역에서 우수한 성과를 보인 상장사 100개사를 '2025년 상반기 ESG Best Companies 100'으로 선정해 발표했다. **([붙임1] 그림 참고)**

선정은 자산 규모에 따라 ▲2조원 이상 상장사 50곳 ▲5천억~2조원 미만 30곳 ▲5천억원 미만 20곳으로 나뉘어 이뤄졌으며, 2조원 이상 상위 기업으로는 현대홈쇼핑(057050), 현대백화점(069960), KT(030200), 5천억원 이상 2조원 미만 기업으로는 HK이노엔(195940), 현대그린푸드(453340), 쿠팡홀딩스(024720), 그리고 5천억원 미만 기업에서는 동일고무벨트 (163560), 안랩(053800), HD현대에너지솔루션(322000)등이 이름을 올렸다.

서스틴베스트는 이번 ESG Best Companies 발표를 통해, 기업 지배구조의 실효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상황 속에서도 ESG 경영의 모범 사례를 조명하고자 했다. 이는 제도적 개선과 더불어 민간 차원의 책임 있는 경영문화 확산이 더욱 절실하다는 점을

환기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참고) 서스틴베스트 ESG평가 개요

서스틴베스트는 2006년 국내 최초로 상장기업 ESG 평가를 도입하여 현재는 약 1,300개의 상장·비상장기업에 대해 매년 상반기와 하반기에 ESG (환경·사회·지배구조) 관리 수준 평가 결과를 발표한다. 평가 결과는 연기금, 자산운용사 등 국내 주요 기관투자자들의 ESG 투자에 활용되고 있다. ESG 분석은 환경, 사회, 지배구조 측면에서 기업의 지속가능성에 큰 영향을 미치는 비재무적 요소와 위험을 평가하는 것으로 기업의 경영 활동이 환경과 사회에 친화적이고 지배구조가 건전할수록 높은 점수를 받는다.

서스틴베스트의 기업 ESG 평가는 사업보고서 공시와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발간 시점을 고려하여 시의성 있는 평가를 제공하고자 1년에 2번 실시된다. 상반기에는 12월 결산법인의 사업보고서 공시에 맞춰 지배구조를 중심으로 평가하고, 하반기에는 환경, 사회를 보강하여 종합 평가를 실시한다.

서스틴베스트는 자산 총액을 기준으로 평가 대상 기업들을 연결 자산 규모 2조원 이상, 5천억원 이상 2조원 미만, 5천억원 미만의 세 그룹으로 구분해 규모별로 차등화된 기준에 따라 점수를 산출하고 이에 따라 등급을 부여하여 발표하고 있다.

[붙임1] 2025년 상반기 ESG Best Companies



2025년 상반기 기업 ESG 평가결과

2025.6

목차

I. 서스틴베스트 평가 체계	02
II. 2025년 ESG 평가 결과	04
III. Negative Screening	06
IV. 과소배당기업	08
V. ESG Best Company	09

SUSTINVEST

I. 서스틴베스트 평가 체계

1. **평가모형:** 당사의 평가 모형인 ESGValue™ 은 상부와 하부로 이어지는 위계적 구조(hierarchy)로 평가 모형의 최상위체계는 환경(E), 사회(S), 지배구조(G) 세 영역으로 구분된다. 각 영역은 Category(평가항목), KPI(평가지표), Data Point(세부지표) 순의 단계별 하부체계로 구성되어 있다.
2. **규모별 등급과 전체 등급:** 규모별 등급은 ESG 평가에서 상대적으로 유리한 여건을 갖춘 대규모 기업들이 높은 점수를 받는 한계를 보완하고 ESG 성과가 우수한 중소기업들을 가려내기 위해 도입한 등급 체계이다. 자산 총액을 기준으로 평가 대상 기업들을 2조원 이상, 5천억원 이상 2조원 미만, 5천억원 미만으로 구분해 규모별로 차등화된 기준에 따라 점수를 산출하고 이에 준해 등급을 부여한다. 규모별 등급과 함께 제공되는 전체 등급은 규모 구분 없이 절대 기준에 따라 등급을 부여한다.
3. **가중치:** 다수의 하부지표 간의 상대적 중요성을 근거로 가중치를 결정하고, 각 단계별 지표 점수에 가중치를 적용해 상위지표의 점수를 산출하고 있다.

또한, 지표 간 상대적 중요성을 근거로 가중치를 결정하되, 그 상대적 중요성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주로 산업별 특성과 각 지표와 재무적 성과 간의 관계(Materiality)를 고려한다.
4. **평가제외:** 해당 기업의 산업적 특성 및 규모 상의 제약으로 인해 특정 지표에 대한 평가가 어렵거나 불필요할 수 있다. 이에 당사에서는 각 기업이 속한 산업과 기업의 규모를 고려해 평가가 어렵거나 무의미한 지표는 평가제외로 분류해 평가를 실시하지 않고 있다.
5. **컨트로버시 이슈:** 평가기간 내 ESG이슈와 관련된 논란이 되는 사안 즉

컨트러버셜한 이슈(Controversial Issue)가 발생한 경우 그 사안이 이해관계자에 미치는 영향의 심각성과 유사한 사안의 재발가능성을 평가하고 있다. 컨트로버시 레벨을 부여받은 경우, ESG 영역별 점수에서 각각 레벨에 맞는 점수가 차감된다.

6. **대규모 기업집단 평가:** 대규모 기업집단 평가를 통해 총수일가가 소수지분으로 기업집단 전반에 영향력을 행사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주주가치 훼손 리스크의 정도를 점수화하여 지배구조(G) 영역의 최종점수를 산출하고 있다.
7. **평가등급:** ESG 평가는 AA, A, BB, B, C, D, E의 7 등급으로 이루어진다.

[표 1] 등급별 의미

등급	의미	설명
AA	ESG 리스크 및 기회 관리 수준이 탁월한 기업	ESG 경영에 대한 리더십과 실행력을 바탕으로, 지속가능성을 핵심 비즈니스 전략에 내재화한 우수 사례를 보여줌
A	ESG 리스크 및 기회 관리 수준이 매우 우수한 기업	ESG 경영에 대해 강한 의지를 보여주며, 지속가능성 이슈를 적극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의 투명성과 책임감을 보여줌
BB	ESG 리스크 및 기회 관리 수준이 우수한 기업	ESG 경영에 대한 의지를 가지고 있으며, 효과적인 ESG 리스크 관리 체계를 운영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
B	ESG 리스크 및 기회 관리 수준이 양호한 기업	기본적인 ESG 리스크 관리 체계를 갖추고 있으나, ESG 경영 측면에서 개선이 필요한 영역이 있음
C	ESG 리스크 및 기회 관리 수준이 보통인 기업	ESG 리스크 관리 체계를 일부 수립하였으나, 포괄적인 지속가능 전략이 부족하여 ESG 경영 측면에서 개선이 필요함
D	ESG 리스크 및 기회 관리 수준이 취약한 기업	ESG 리스크 관리 체계가 미흡하며, 포괄적 지속가능 전략의 부재로 모니터링이 필요함
E	ESG 리스크 및 기회 관리 수준이 매우 취약한 기업	최소한의 ESG 리스크 관리 체계 수준을 충족하지 못하며, ESG 공시 정보가 부족하여 낮은 ESG 성과로 인한 리스크에 노출되어 있음

II. 2025년 ESG 평가 결과

1. 평가 대상 기업: 당사는 2025년 상반기 ESG 평가에서 유가증권시장 상장 기업 752개, 코스닥 상장 기업 319개, 비상장 기업 224개, 총 1,295개의 기업에 대한 분석을 진행하였다. 평가 대상 기업 중 연결 기준으로 총 자산 규모가 2조원 이상인 기업은 436개, 2조원 미만인 기업은 859개이다.
2. 평가 성과 분석: 이번 평가를 포함한 최근 3개 평가시기의 등급 분포와 자산 규모별 등급 분포는 아래 표 2과 표 3에 제시하였다.

[표 2] 평가시기별 등급 분포 (기업 수)

평가시기/ 등급	AA	A	BB	B	C	D	E	Total
2024 상반기	144	261	373	249	188	47	22	1,284
	11.2%	20.3%	29.1%	19.4%	14.6%	3.7%	1.7%	100%
2024 하반기	146	265	367	256	180	53	20	1,287
	11.3%	20.6%	28.5%	19.9%	14.0%	4.1%	1.6%	100%
2025 상반기	140	254	381	236	213	52	19	1,295
	10.8%	19.6%	29.4%	18.2%	16.4%	4.0%	1.5%	100%

출처: 서스틴베스트

[표 3] 자산 규모별 등급 분포 (기업 수)

규모	연도/등급	AA	A	BB	B	C	D	E	Total
2 조 이 상	2024	49	96	106	77	68	15	6	417
	상반기	11.8%	23.0%	25.4%	18.5%	16.3%	3.6%	1.4%	100%
	2024	52	99	98	84	57	23	5	418
	하반기	12.4%	23.7%	23.4%	20.1%	13.6%	5.5%	1.2%	100%
		56	92	109	83	65	26	5	436

	2025 상반기	12.8%	21.1%	25.0%	19.0%	14.9%	6.0%	1.1%	100%
2 조 미 만	2024 상반기	95	165	267	172	120	32	16	867
		11.0%	19.0%	30.8%	19.8%	13.8%	3.7%	1.9%	100%
	2024 하반기	94	166	269	172	123	30	15	869
		10.8%	19.1%	31.0%	19.8%	14.2%	3.5%	1.7%	100%
	2025 상반기	84	162	272	153	148	26	14	859
		9.8%	18.9%	31.7%	17.8%	17.2%	3.0%	1.6%	100%

출처: 서스틴베스트

III. Negative Screening

네거티브 스크리닝은 사회적 기준에서 부정적으로 평가되는 무기(방위), 주류, 도박, 담배 등의 사업을 영위하는 죄악주(sin stock)를 포트폴리오나 펀드에서 배제하는 투자전략이다. 서스틴베스트는 ESG 평가시 상기 사업 영위 여부에 따라 평가대상종목에서 배제하고 있지 않지만 기관투자자의 책임투자 측면 의사결정을 돕고자 참고자료로 무기, 주류, 도박, 담배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 목록을 제공하고 있다. 특히, 최근 투자자들의 기후변화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2022년 상반기부터는 국내외 석탄 채굴, 석탄 발전, 석탄 사용 집단 에너지 사업 영위 기업 등 석탄 관련 사업 영위 기업을 네거티브 스크리닝 목록에 추가하였다.

무기 관련 기업은 방위사업법 제35조(방산업체의 지정 등)에 의하여 지정된 방산업체를 포함한다. 스크리닝 기업 중 풍산홀딩스, 풍산은 집속탄(cluster munition)을 생산/판매한다. 집속탄은 민간인 사상자를 내는 무기로 100개국 이상이 생산과 사용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사용금지 조약을 체결하였다. 상기 기업들은 이로 인해 상당수 해외 기금 운용 기관들의 투자배제목록(exclusion list)에 포함 되어있다.

아래 표 4에서는 다음에 해당하는 상장기업 목록을 제시하였다. 1) 무기 관련 기업 중 집속탄, 대인지뢰를 판매하는 기업 2) 주류, 담배, 도박 관련 기업 중 연결 혹은 별도 재무제표 기준으로 해당 사업이 전체 매출액의 40%이상 차지하는 기업

[표 4] 2025년 서스틴베스트 네거티브 스크리닝 기업

종목명	스크리닝 분류	사업 내용
풍산홀딩스	Firearms & Weapons	집속탄 (Cluster weapons)
풍산	Firearms & Weapons	집속탄 (Cluster weapons)
LIG 넥스원	Firearms & Weapons	집속탄 (Cluster weapons)

종목명	스크리닝 분류	사업 내용
SNT 홀딩스	Firearms & Weapons	대인지뢰 (Anti-personnel mines)
SNT 다이내믹스	Firearms & Weapons	대인지뢰 (Anti-personnel mines)
KT&G	Tobacco	궐련 (제조담배), 잎담배 제조
MH 에탄올	Alcohol	주류제조용 주정
보해양조	Alcohol	주류 (소주, 과일주)
무학	Alcohol	주류 (소주, 리큐르)
하이트진로	Alcohol	주류 (맥주, 소주 등)
롯데관광개발	Gaming	카지노 (도박)
GKL	Gaming	카지노 (도박)
파라다이스	Gaming	카지노 (도박)
강원랜드	Gaming	카지노 (도박)

IV. 과소배당기업

당사는 기업의 배당 지급 여력과 실제 배당 지급 수준을 비교하여 과소배당에 해당되는 기업을 선정하였다. 이를 위해 당사는 기업의 부채비율, 미처분이익잉여금, 당좌자산, 배당성향, 배당 수익률 등의 정보 등을 고려해 동종 산업 내의 평균적인 배당 수준과 비교, 과소 배당 여부를 판단하였다. 표 5에서는 과소배당 기업 중 자산규모 2조원 이상, 5천억원 이상 2조원 미만의 상장기업을 제시하였다.

[표 5] 2025년 서스틴베스트 과소배당 기업

종목명	섹터명	자산규모
CJ 대한통운	운송	2 조이상
SK 바이오사이언스	제약, 생명공학 및 생명과학	2 조이상
미래에셋생명	보험	2 조이상
한화손해보험	보험	2 조이상
크래프톤	미디어와 엔터테인먼트	2 조이상
현대비엔지스틸	소재	5 천억이상
진흥기업	자본재	5 천억이상
휴젤	제약, 생명공학 및 생명과학	5 천억이상
다날	금융 서비스	5 천억이상
티에스이	반도체 및 반도체 장비	5 천억이상
네오위즈	미디어와 엔터테인먼트	5 천억이상
네오위즈홀딩스	일반지주	5 천억이상

출처: 서스틴베스트

V. ESG Best Company

[표 6] ESG Best Company 2025 상반기

순위	기업명	순위	기업명
연결 재무제표 기준 2조원 이상 기업			
1	현대홈쇼핑	26	한국항공우주산업
2	현대백화점	27	LGU+
3	KT	28	아모레퍼시픽
4	유한양행	29	대한항공
5	NAVER	30	HD 현대건설기계
6	폴무원	31	한국콜마
7	제주은행	32	동아쏘시오홀딩스
8	NCSOFT	33	삼성증권
9	GS 리테일	34	포스코인터내셔널
10	OCI 홀딩스	35	호텔신라
11	현대지에프홀딩스	36	교보증권
12	KCC 글라스	37	삼성전기
13	DL 이앤씨	38	서연
14	BGF	39	HD 현대중공업
15	한진칼	40	SK 네트워크
16	HD 현대인프라코어	41	롯데정밀화학
17	현대엘리베이터	42	카카오뱅크
18	LG 이노텍	43	현대모비스
19	한화에어로스페이스	44	아모레퍼시픽홀딩스
20	NH 투자증권	45	한진
21	대상홀딩스	46	HMM
22	LG 생활건강	47	포스코퓨처엠
23	SK 스퀘어	48	CJCGV
24	DB 하이텍	49	현대글로비스
25	KCC	50	삼성바이오로직스

순위	기업명	순위	기업명
연결 재무재표 기준 5천억원 이상 2조원 미만 기업			
1	HK 이노엔	16	HLB
2	현대그린푸드	17	코스맥스
3	콜마홀딩스	18	하나투어
4	동아 ST	19	한솔홀딩스
5	한섬	20	주성엔지니어링
6	한세실업	21	스카이라이프
7	한독	22	매일홀딩스
8	에스티팜	23	해성디에스
9	HL 디앤아이한라	24	하림
10	한국전력기술	25	LX 홀딩스
11	LG 헬로비전	26	현대리바트
12	롯데하이마트	27	컴투스
13	보령	28	세아제강
14	신세계인터내셔널	29	신세계아이앤씨
15	클래시스	30	포스코 DX
연결 재무재표 기준 5 천억원 미만 기업			
1	동일고무벨트	11	에이블씨엔씨
2	안랩	12	삼호개발
3	HD 현대에너지솔루션	13	테이팩스
4	한미글로벌	14	모나리자
5	애경산업	15	효성 ITX
6	가온그룹	16	동원금속
7	테스	17	덕산네오룩스
8	경보제약	18	에코프로에이치엔
9	상아프론테크	19	광명전기
10	영진약품	20	부광약품

출처: 서스틴베스트

(주) 서스틴베스트 | 02-6310-9300 | www.sustinvest.com

본 보도자료는 당사의 저작물로서 모든 지적재산권은 당사에게 귀속되며, 당사의 동의 없이 복제, 배포, 전송, 변형, 대여할 수 없습니다. ©2025. SUSTINVEST Co., Ltd. All rights reserved.

(주) 서스틴베스트 | 02-6310-9300 | www.sustinvest.com

본 보도자료는 당사의 저작물로서 모든 지적재산권은 당사에게 귀속되며, 당사의 동의 없이 복제, 배포, 전송, 변형, 대여할 수 없습니다. ©2023. SUSTINVEST Co., Ltd. All rights reserved.